

첨부파일 1. 소비자피해 사례

【사례1】 피부시술(할인 계약 후 정상가 차감)

- A씨(남, 30대)는 2017. 2. 24. 여드름 치료를 위해 레이저 3회 패키지시술을 받기로 계약하고 100만 원을 결제한 후 레이저시술 1회를 받음. 이후 흉터가 지속돼 치료를 미루다 같은 해 12. 14.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청했으나, 레이저시술 1회 정상가 70만 원을 차감한 30만 원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.

【사례2】 성형수술(의사 진료없이 계약)

- B씨(남, 20대)는 2016. 6. 30. 상담직원과 유선상담을 통해 눈 성형술에 대해 문의한 후 수술날짜를 예약(같은 해 7. 8.)하고 총 수술비 500만 원 중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입금함. 이후 같은 해 7. 4. 수술예약 취소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환급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음.

【사례3】 체형교정(의료기관 환불 규정 주장)

- C씨(여, 20대)는 2016. 3. 8. 턱관절 경직, 어깨통증, 허리디스크 상담 후 공간척추교정 10회 패키지시술을 받기로 하고 300만 원을 결제함. 이후 4회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미흡해 3. 24.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자 규정상 환불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거부함.

【사례4】 한약 침치료(과도한 위약금 차감)

- D씨(여, 20대)는 허리통증으로 2015. 7. 18. 허리치료 10회 프로그램을 받기로 하고 371,200원을 결제함. 이후 4회 치료를 받은 후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받은 치료비용과 전체 비용의 30%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 환급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.

【사례5】 성형수술(선납금액 전액 환급 불가)

- E씨(여, 60대)는 2019. 4. 8. 하안검 지방재배치 및 눈가주름 필러주입을 위해 상담 실장과 유선상담 후 다음 날로 수술을 예약(14:00경)하고 145만 원을 결제함. 수술 당일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수술을 취소(17:00경)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선납한 145만 원 전액 환급을 거부함.